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94-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6 가족인식조사: 정상가족에 대한 인식

2026. 8. 26.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무엇이 정상인지를 규정하는 순간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생기고, 이는 특정 가족 형태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책 영역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상가족'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가족'이나 '가족 다양성'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해 왔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정상가족' 개념을 굳이 묻은 이유를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이 조사가 측정하려는 것은 어떤 가족 형태가 정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경계선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가족 형태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개념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 문항은 2022년부터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왔다. 수용성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 변화가 멈춰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문항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정상가족'은 특정 가족 형태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응답자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승인의 경계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이다. 이하의 결과는 어떤 가족이 정상 혹은 비정상이라는 진술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다수가 정상가족으로 인정 동거가족, 대안가족, 동성가족은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에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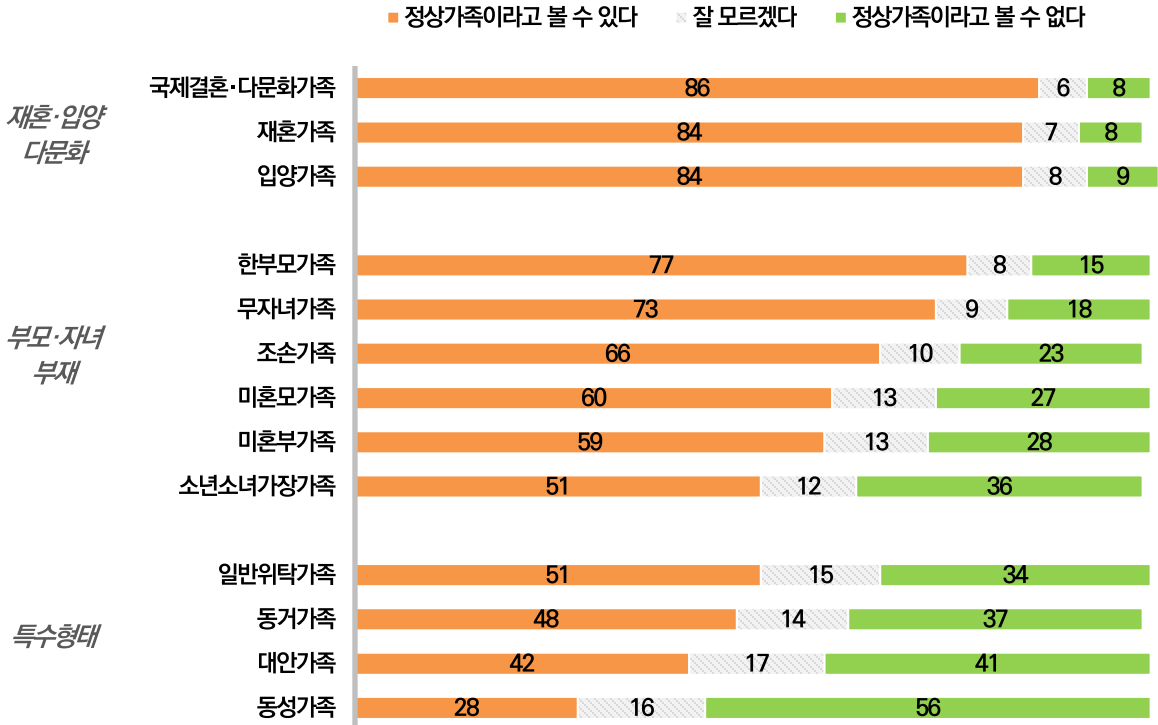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13개 가족 형태별로 물었다. 국제결혼·다문화가족(86%), 재혼가족(84%), 입양가족(84%)은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 수용도가 가장 높다. 한부모가족(77%), 무자녀가족(73%), 조손가족(66%) 등 부모 혹은 자녀가 부재한 형태에 대해서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반면 미혼모가족(60%)과 미혼부가족(59%)은 60% 안팎으로 낮아지고, 소년소녀가장가족(51%), 일반위탁가족(51%), 동거가족(48%), 대안가족(42%)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동성가족은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이 28%에 그치고, 볼 수 없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어 13개 항목 중 유일하게 부정적 인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13개 항목의 순서를 놓고 보면 일정한 규칙이 드러난다. 재혼·입양·다문화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형이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성립하는 관계이고, 한부모·무자녀·조손가족은 구성원이 줄었을 뿐 혈연의 축은 유지된다. 그러나 동거·대안·동성가족은 혈연도 법적 혼인도 전제하지 않는다. 혈연이나 법적 혼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날수록 수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정상가족 인정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은 혈연과 혼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롯하지 않은 가족은 그만큼 사회적 승인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다수가 정상가족으로 인정 동거가족, 대안가족,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에 못 미쳐

(단위 : %)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8. ~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일반위탁·동거·대안가족은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 꾸준히 감소 반면 동성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년간 변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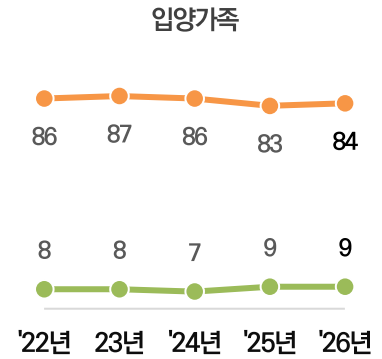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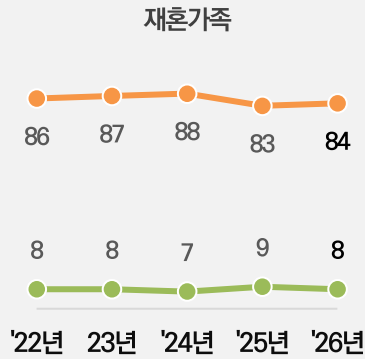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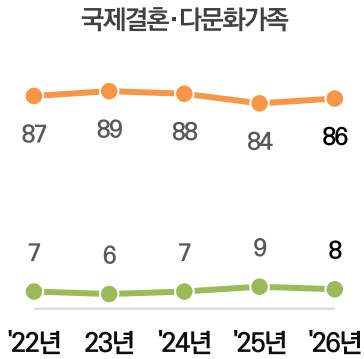
재혼·입양·다문화가족이나 부모 혹은 자녀가 부재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혈연이나 법적 혼인을 전제하지 않는 특수형태 가족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 응답의 감소가 뚜렷하다. 2022년 결과와 비교할 때,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은 대안가족에서 7%포인트(2022년 48% → 2026년 41%), 동거가족에서 7%포인트(44% → 37%), 일반위탁가족에서 6%포인트(40% → 34%) 낮아졌다.

반면 동성가족에 대한 수용성은 5년간 변화가 없다.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은 2022년(29%)과 2026년(28%)간 차이가 없고,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도 2022년 결과(56%)와 2026년 결과(56%)가 동일하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특수형태 가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변화하는 흐름이나, 동성가족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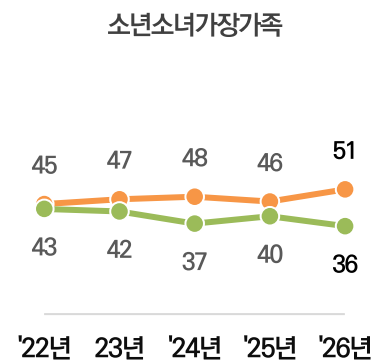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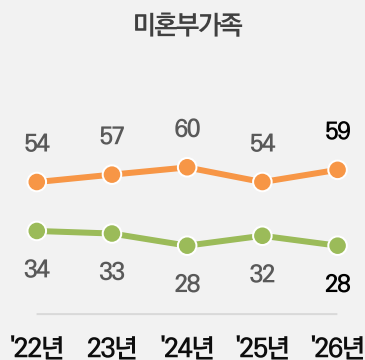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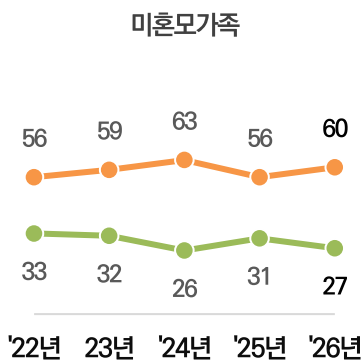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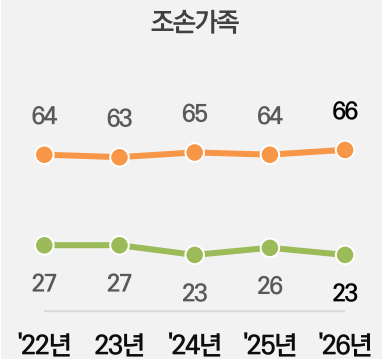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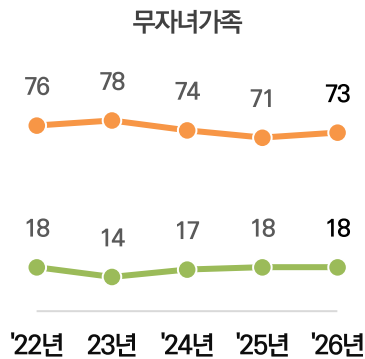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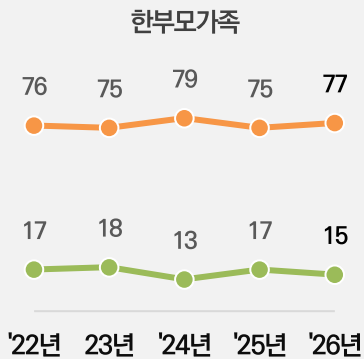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변화… 재혼·입양·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수용성 높은 상태로 유지
소년소녀가장가족 제외, 부모 혹은 자녀가 부재한 가족 형태도 수용성 높아

재혼·입양·다문화

—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응답(%)
—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 응답(%)



부모·자녀 부재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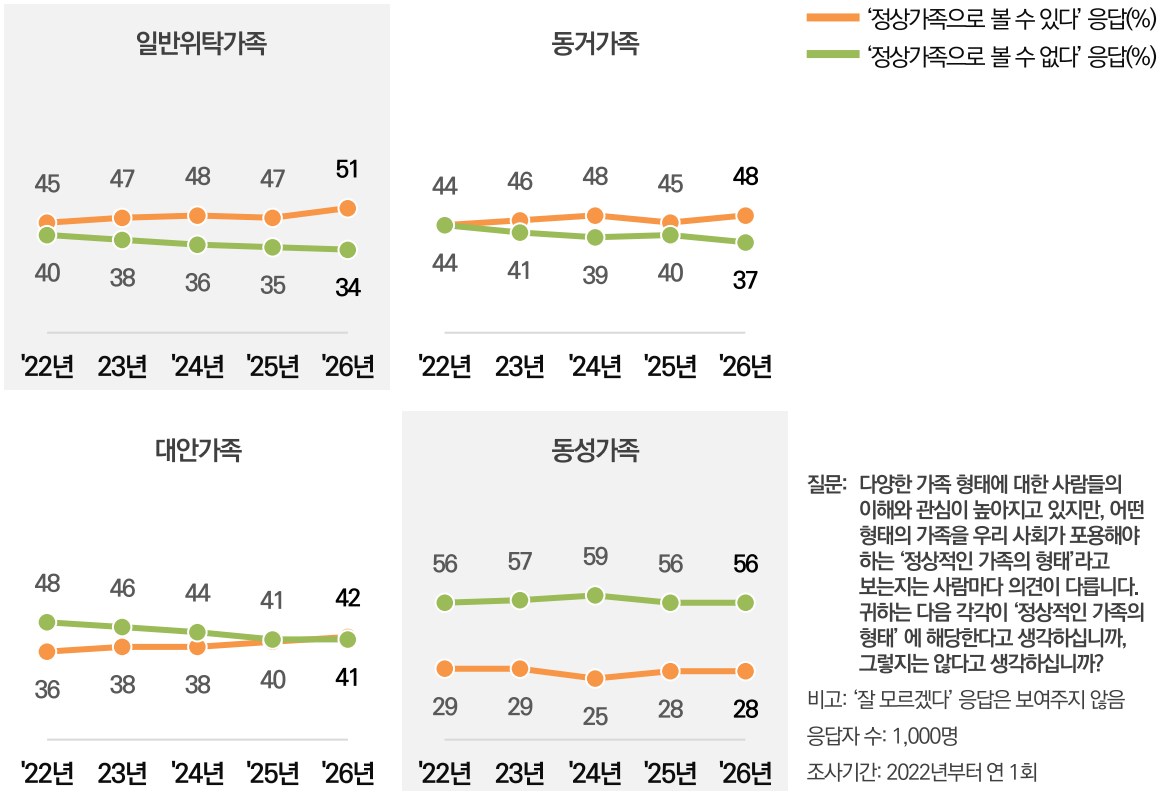
비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년부터 연 1회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족에 대한 수용성은 떨어지는 편
다만 동성가족 제외, 일반위탁가족과 동거가족, 대안가족의 수용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모습 보여

특수형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령대 낮을수록 부모 혹은 자녀 부재, 혹은 특수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 높아 특히 2·30대 여성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커

여성의 수용도가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높거나 같다. 격차는 특히 무자녀가족(남성 66%, 여성 81%), 미혼모가족(남성 51%, 여성 68%), 동성가족(남성 22%, 여성 35%)에서 크게 벌어진다.

특히 2·30대 여성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다. 30대 여성은 무자녀가족(90%), 미혼모가족(86%), 동성가족(55%) 등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이 동년배 남성 및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높다. 18~29세 여성 역시 조손가족(83%), 무자녀가족(89%), 동성가족(61%)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진보층은 모든 항목에서 보수층보다 수용도가 높고, 특히 동성가족(진보층 45%, 보수층 19%), 대안가족(진보층 54%, 보수층 39%), 동거가족(진보층 60%, 보수층 39%), 일반위탁가족(진보층 65%, 보수층 47%)에서 격차가 크다.

연령대 낮을수록 부모 혹은 자녀가 부재한 형태 혹은 특수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특히 2·30대 여성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커

(단위 : %)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볼 수 있다' 응답	사례수 (명)	재혼·입양·다문화			부모·자녀 부재						특수형태			
		국제 결혼· 다문화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조손 가족	미혼모 가족	미혼부 가족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일반 위탁 가족	동거 가족	대안 가족	동성 가족
전체	(1,000)	86	84	84	77	73	66	60	59	51	51	48	42	28
성별														
남자	(496)	85	82	79	72	66	61	51	52	50	49	47	40	22
여자	(504)	87	87	88	82	81	71	68	65	53	53	50	45	35
연령														
18-29세	(149)	83	83	82	80	82	75	65	64	53	61	50	49	42
30대	(149)	86	87	85	78	78	73	74	74	53	55	57	47	38
40대	(168)	85	82	85	75	72	67	64	59	51	54	52	41	31
50대	(194)	91	90	87	85	80	71	63	64	56	54	53	46	26
60대	(178)	86	84	80	76	66	60	52	53	51	43	42	37	22
70세 이상	(162)	83	80	83	67	61	53	42	41	44	42	35	35	15
성별×연령														
남자_18-29세	(77)	79	77	75	74	74	67	55	55	49	56	42	44	24
여자_18-29세	(72)	88	89	90	87	89	83	75	73	57	65	58	54	61
남자_30대	(79)	80	79	78	68	68	66	64	69	46	47	48	39	22
여자_30대	(70)	94	95	92	90	90	82	86	79	62	63	67	57	55
남자_40대	(86)	83	81	83	71	66	64	60	54	51	50	55	37	28
여자_40대	(82)	88	83	87	80	78	69	68	64	51	58	50	45	34
남자_50대	(98)	92	90	84	82	72	66	52	56	54	53	51	44	21
여자_50대	(96)	90	90	90	88	87	76	75	71	58	55	55	48	30
남자_60대	(87)	86	80	73	70	54	54	41	43	49	45	43	39	18
여자_60대	(91)	86	87	87	82	78	65	63	62	52	41	41	35	25
남자_70세 이상	(69)	86	81	83	63	57	50	35	34	49	43	39	34	16
여자_70세 이상	(93)	81	79	83	70	65	56	47	46	40	42	33	35	14
이념성향														
진보층	(276)	94	91	93	87	83	75	69	68	58	65	60	54	45
중도층	(345)	85	84	83	77	73	64	59	58	53	46	48	37	25
보수층	(331)	83	82	80	72	68	63	53	52	48	47	39	39	19
혼인상태														
미혼	(304)	85	84	84	80	78	75	69	66	54	58	54	53	43
배우자 있음	(587)	87	85	84	76	73	62	55	55	50	48	46	37	22
사별, 이혼	(110)	84	82	82	75	61	63	60	59	54	49	41	41	23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볼 수 있다'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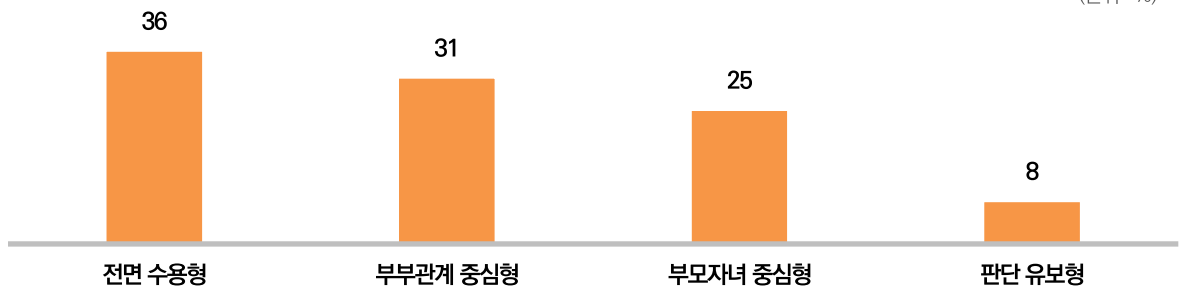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6. 5. 8. ~ 11.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모두 폭넓게 수용하는 '전면 수용형'이 36%로 가장 많고 부부관계 중심형(31%), 부모자녀 중심형(25%) 순

13개 가족유형 각각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비슷한 응답을 한 사람끼리 유형화를 해 본 결과,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여러 가족 형태를 모두 폭넓게 수용하는 '전면 수용형'으로, 전체 응답자의 36%이다. 이어서 결혼으로 이어진 부부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부관계 중심형'이 31%이며, 핏줄로 이어진 부모-자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모자녀 중심형'이 25%이다. 8%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뚜렷한 경향성이 없는 '판단 유보형'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모두 폭넓게 수용하는 '전면 수용형'이 36%로 가장 많고
혼인 여부를 중요시하는 부부관계 중심형(31%), 부모·자녀 결합을 중시하는 부모자녀 중심형(25%) 순

(단위 : %)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13개 가족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4개 그룹으로 유형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8. ~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은 유형과 관계없이 다수가 가족이라고 인정한다. 결혼으로 시작되거나 결혼을 유지한 형태의 가족은 대체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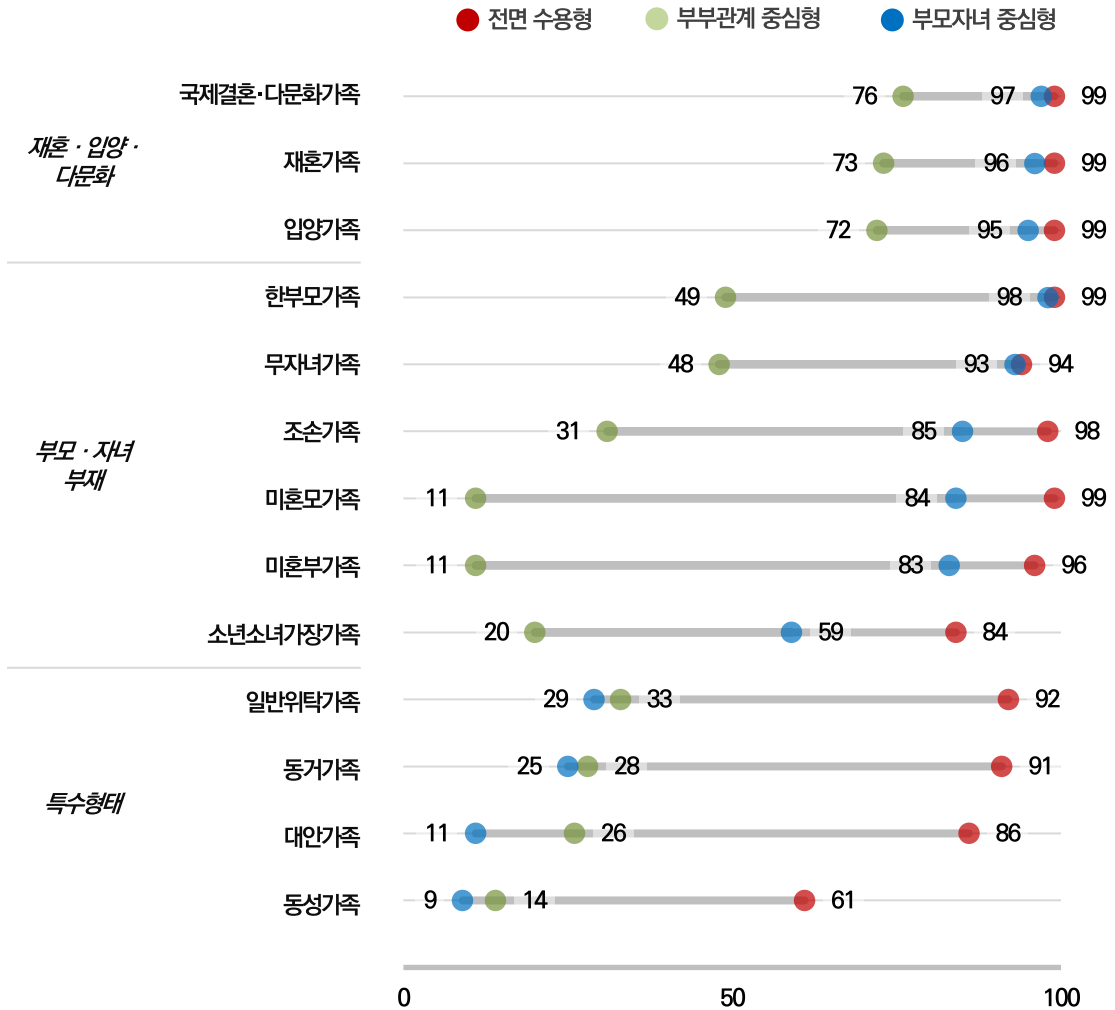
반면 미혼모가족·미혼부가족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인식차이를 보인다. 부모자녀 중심형은 미혼모가족(84%)과 미혼부가족(83%)을 대부분 수용하지만, 부부관계 중심형은 각각 11%만 수용해, 7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보인다. 한부모가족(부모자녀 중심형 98%, 부부관계 중심형 49%), 조손가족(부모자녀 중심형 85%, 부부관계 중심형 31%)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으로 보는 쪽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가족으로 보는 쪽이 갈리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자녀 중심형이 모든 가족 형태에 더 관대한 것은 아니다. 핏줄로 이어진 부모-자녀 관계가 없는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낮다. 일반위탁가족(29%), 동거가족(25%), 대안가족(11%), 동성가족(9%)을 수용하는 비율은 모두 전체 결과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부부관계 중심형도 혼인 밖의 가족 형태 전반에 부정적이다. 앞서 언급한 미혼모·미혼부가족뿐 아니라 동거가족(28%), 대안가족(26%), 동성가족(14%)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지 않다.

전면 수용형은 대부분의 가족 형태를 모두 폭넓게 수용... 부부관계 중심형은 혼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형태, 부모자녀 중심형은 혈연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수용 여부를 고려해

(단위 : %)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13개 가족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형화. 각 가족유형별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8. ~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여성과 젊은 층은 '전면 수용형', 남성과 고령층은 '부부관계 중심형' 많아 30대 여성은 59%가 전면 수용형, 70세 이상 남성 58%가 부부관계 중심형 부모자녀 중심형은 응답자 특성별 차이 크지 않아

여성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모두 폭넓게 수용하는 전면 수용형이 41%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부관계 중심형이 37%로 가장 많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중심형이 늘어난다. 18-29세와 30대에서 각각 23%, 18%인 부부관계 중심형은 60대에서는 39%, 70세 이상에서는 48%로 높아진다. 전면 수용형은 18-29세 45%, 30대에서는 46%이지만 70세 이상에서는 23%로 낮아져 정반대 흐름을 보인다.

30대 여성의 59%, 18-29세 여성의 55%가 전면 수용형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장 폭넓게 인정한다. 반면 70세 이상 남성은 58%, 60대 남성은 52%가 부부관계 중심형이다. 두 집단은 사실상 정반대 지점에 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50대 남성 중에서는 부부관계 중심형이 37%로 여성(17%)대비 두 배 이상 많고, 60대 남성은 52%가 부부관계 중심형으로 여성(27%)보다 두 배 가량 많다. 70세 이상도 남녀간 차이가 18%포인트이다(70세 이상 남성 58%, 여성 40%).

이념성향으로 나눠보면 진보층은 전면 수용형(51%), 보수층은 부부관계 중심형(40%)이 가장 많다. 중도층은 전면 수용형 33%, 부부관계 중심형 29%, 부모자녀 중심형 28%로 고르게 나뉜다.

한편 부모자녀 중심형은 성별(남성 23%, 여성 27%), 연령대(19 ~ 29%), 이념성향(20 ~ 28%)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비율을 차지한다.

정상가족 인정 여부를 가르는 선은 혈연과 법적 혼인이다. 재혼·입양·다문화가족이나 혈연의 축이 유지되는 한부모·무자녀·조손가족은 다수가 정상가족으로 받아들이지만, 혈연도 혼인도 전제하지 않는 동거·대안·동성가족을 수용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혈연 관계를 꼽은 사람이 61%로 가장 많다는 점](#)과 연결해 보면, '가족의 범위'와 '수용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 모두 혈연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그 기준은 세대에 따라 갈린다. 18-29세와 30대의 절반 가까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전면 수용형인 반면, 70세 이상은 48%가 부부관계 중심형이다. 이는 특정 가족 형태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기보다는, 가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과 젊은 층은 '전면 수용형', 남성과 고령층은 '부부관계 중심형' 많아
30대 여성은 59%가 전면 수용형, 70세 이상 남성 58%가 부부관계 중심형
부모자녀 중심형은 응답자 특성별 차이 크지 않아

(단위 : %)

	사례수 (명)	전면 수용형	부부관계 중심형	부모자녀 중심형	판단 유보형
전체	(1,000)	36	31	25	8
성별					
남자	(496)	30	37	23	10
여자	(504)	41	24	27	7
연령					
18~29세	(149)	45	23	25	7
30대	(149)	46	18	26	10
40대	(168)	37	27	27	9
50대	(194)	37	27	29	6
60대	(178)	29	39	23	8
70세 이상	(162)	23	48	19	10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77)	36	30	25	9
여자_18~29세	(72)	55	16	24	6
남자_30대	(79)	34	23	28	15
여자_30대	(70)	59	13	24	4
남자_40대	(86)	33	26	28	13
여자_40대	(82)	41	29	25	6
남자_50대	(98)	32	37	25	6
여자_50대	(96)	42	17	34	7
남자_60대	(87)	24	52	14	10
여자_60대	(91)	34	27	32	7
남자_70세 이상	(69)	21	58	14	7
여자_70세 이상	(93)	24	40	24	12
이념성향					
진보층	(276)	51	25	20	4
중도층	(345)	33	29	28	11
보수층	(331)	29	40	25	6
혼인상태					
미혼	(304)	47	21	23	9
배우자 있음	(587)	31	37	25	7
사별, 이혼	(110)	31	27	30	12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13개 가족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4개 그룹으로 유형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8. ~ 11.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률	• 조사요청 63,337명, 조사참여 1,51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6%, 참여대비 65.8%)
조사일시	• 2026년 5월 8일 ~ 5월 1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